

이번엔 ‘빨간 치마의 마법’ 김세영 시즌 2승



김세영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 에어의 펠리컨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펠리컨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후손을 들어 미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14언더파 266타 LPGA 펠리컨챔피언십 우승
통산 12승...상금·올해의 선수·평균 타수 선두
세계랭킹 1위 고진영 3오버파 283타 공동 34위**

김세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6,03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엘리 맥도널드(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22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를 받은 김세영은 시즌 상금 113만3,219달러를 획득, 상금 1위였던 박인비(32)의 106만6,520달러를 제치고 상금 1위가 됐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포인트 30점을 추가, 106점이 되면서 90점으로 1위를 달리던 박인비를 추월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유지한 김세영은 이번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선두에 나섰다. 10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김세영은 시즌 2승을 달성했

고, 투어 통산 12승째를 거뒀다. 한국 선수 가운데 LPGA 투어 최다승 기록은 박세리(은퇴·43)의 25승이고, 그 뒤를 20승의 박인비와 12승의 김세영, 11승의 신지애(32) 등이 추격 중이다. 전날까지 5타 차로 비교적 여유 있는 단독 1위를 달린 김세영은 이날 9번 홀(파3) 보기로 맥도널드와 격차가 3타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14번 홀(파5)에서 약 4m 정도 중거리 리버디 퍼트를 넣고 4타 차로 말아냈고, 15번 홀(파3)에서는 티샷이 벙커에 들어갔지만 벙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으로 보내 2위와 간격을 유지했다. 16번 홀(파4)에서 맥도널드가 보기를 적어 내며 둘의 격차가 5타로 벌어져 승부가 사실상 정해졌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김세영 보기, 맥도널드는 버디로 2타가 좁혀졌지만 순위와는 무관했다. 통산 상금 979만 9,895달러를 획득, 상금 1,000만 달러 고지도 눈앞에 두게 된 김세영은 교포 선수인 대니얼 강(미국)과 함께 올해 2승으로 다승 부문에서도 공동 1위가 됐다.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김세영은

2015년 3승을 시작으로 2016년(2승), 2019년(3승)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다승 시즌을 만들었다. 또 김세영은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출전한 첫 대회에서 또 우승했는데 이는 2016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5승을 합작, 미국과 함께 2020 시즌 LPGA 투어 최다승 국가 공동 1위가 됐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나라는 한국이었다. 김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우승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열네 살 때 한국 아마추어 대회부터 빨간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우즈를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즈는 마지막 날 빨간색 티셔츠를 입지만 나는 바지를 입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외에 박희영(33)이 1언더파 279타로 공동 15위에 올랐다. 올해 첫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은 3오버파 283타, 공동 34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 랭킹 2위 김세영과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 시즌 LPGA 투어는 12월에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을 포함해 3개 대회가 남았다. /연합뉴스

동신고 소프트테니스 전국 최강 재확인

중·고 추계연맹전 금3·은1·동2

동신고등학교가 2020 전국 남녀 중고 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서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전국 고교 최강팀답게 단체전에서 대회 2연패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개인 단·복식 등 전 종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신고는 지난 22일 해남 우슬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2020 전국 남녀 중고 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12개 팀이 출전한 남고부 단체전에서 동신고는 예선리그 2승(울산 약사고 2-0 승·충북 음성고 2-0 승)으로 조 1위를 하며 4강에 올랐다. 4강에서 순창제일고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동신고는 인천고와 경기에서 제1경기 복식에 나선 주형찬·문정인(이상 2년)이 정중훈·김상훈 조를 4-2로 물리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어 제2경기 단식에 나선 조성준(2년)이 인천고 김길현을 4-2로 이겨 우승을 확정 지었다. 단체전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



동신고가 지난 22일 해남 우슬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2020 전국 남녀 중·고 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동신고 제공

연패 쾌거다. 개인 복식에 출전한 정은기(3년)·조성준은 남고부 결승전에서 경기 다산고 김계민-김두현을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정일(3년)·주형찬은 4강에서 같은 학교 정은기·조성준에게 2-4로 저 동메달을 기록했다. 개인 단식에서는 동신고가 1, 2, 3위를 휩쓸었다. 문정인은 결승전에서 팀 선배 정정일의 부상 기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정일 /최진화 기자

광주대 U리그 왕중왕전 진출 27일부터 32개 팀 경쟁 돌입

광주대학교가 2020 시즌 U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광주대는 지난 20일 보라매3구장에서 열린 KUSF 대학축구 U리그 6권역(광주·전남·전북 지역) 최종전에서 조선태와 2-2 무승부를 기록, 4승3무1패로 조 2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조선태전에서 전반 2골을 내준 광주대는 후반 초반부터 파상공세를 펼쳤고 양준혁(3년)의 연속골로 무승부를 거둬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광주대는 조당대(3-0), 우석대(2-0), 전주대(3-0), 목포과학대(7-0)를 상대로 4승을 거뒀고 세한대(1-1), 남부대(0-0), 조선태(2-2)와 무승부를 거뒀다. 호남대(0-1)에만 패했다. 6권역 1위는 전주대(17점·5승2무1패)가 차지했으며 광주대는 남부대와 승점에서 동률(15점)을 이겼으나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 2위를 차지했다. 박규민(1년)은 9득점으로 득점 순위 1위에 올랐다. 한편 U리그 왕중왕전은 3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북 김천 시에서 펼쳐진다. /최진화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환영” 시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아우르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광주시체육회가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안은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포함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지방체육회를 지방자

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할 등이다. 광주시체육회는 그동안 전국시도체육회와 함께 법정 법인화 등 지방체육회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는 문체부와 협의해 시도별 법인 설립에 대한 교육, 표준정관 작성 등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최진화 기자

KIA 최원준 군입대 연기 “한시즌 더 도전”

KIA 타이거즈 최원준(23)이 군입대를 내년 시즌 뒤로 미뤘다. 최원준은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운영팀과 면담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혔고, 구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1997년생인 최원준은 올 시즌을 마친 뒤 군복무를 할 예정이었다. 2016년 KIA 입단 선수 중 군복무를 하지 않은 선수는 최원준뿐이다. 김현준, 남재현, 전상현, 서덕원, 이진영, 김규성은 병역의무를 마쳤고 현재 류승현이 상무에서, 신범수가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다. 최원준도 지난해 말 입대 예정이었으나 한 시즌 더 뛰고 가겠다고 입대를 연기했고, 그 결과 올 시즌 커리어하이로 찍었다. 2020 시즌 성적은 123경기 타율 0.326, 2홈런, 35타점, 72득점, 14도루. 최원준은 올해 1번타자 중견수로 프로 입단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윌리엄스 감독도 최원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즌 막판에 “입대를 보류해달라. 내년에도 함께 하자”는 요청을 한 상



최원준

태웠다. 최원준은 시즌이 끝난 뒤 고민했다. 희망하던 상무(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려면 모집 요강에 따라 12월 초에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최원준은 시즌 종료 후 고민 끝에 “한 시즌 더” 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원준은 “시즌 마치고 군 입대를 두고 고민했다. 한 시즌 더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구단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올 시즌 나름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인 것 같기에 좋은 감독님 코치님들과 조금 더 함께하면서 ‘저만의 것’을 적립한 이후 군 복무를 할 생각이다”며 “내년 시즌에 기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팀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호랑이 가족 한마당 28일 유튜브 생중계

KIA 타이거즈 ‘2020 호랑이가족 한마당’이 28일 오후 3시부터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로 열린다. 호랑이가족 한마당은 매년 시즌이 끝난 뒤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KIA 선수와 팬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현장 초청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2020 호랑이가족 한마당’은 유튜브 KIA타이거즈TV를 통해 진행되며 KIA 선수단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비대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준비된 행사는 시즌 영상 상영, 선수단 인사, 선수-팬 토크쇼, 팀 대항 레크리에이션, 선수장기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랜선 사인회’도 열린다. 이창진, 최원준, 박찬호, 김태진(이상 26일)과 김선빈, 김규성, 고영창, 임기영(이상 27일)이 참여해 팬들과 만난다. /최진화 기자